



배포일자 : 2025년 12월 30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사랑 나눔 ‘무료배식’ 봉사활동으로 한 해 마무리!

- 사랑 나눔 활동으로 위원회와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 실천
- 오세희 위원장, “말보다 손을 보태는 나눔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연대 확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오세희)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서 2025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단 20여 명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무료 점심을 위한 방문한 400여 분께 배식 봉사와 설거지 등 뒷정리에 직접 참여하고, 김과 미역 등 식재료와 단팥빵 등 간식류를 기부하며 온정을 나눴다. 봉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우리가 준비한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식 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영등포전통시장으로 이동해 연말 장보기를 진행하며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오늘의 봉사 역시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보여준 헌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정기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이어가고,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끝.

※ 붙임 : 나눔 활동 현장 사진

※ 별첨 : 나눔 활동 현장 사진

